지역 소식통

부안군, 우체국쇼핑몰 추석 특별 할인판매전 진행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중)은 추석명절을 맞아 우체국쇼핑몰 '부안군 추석 브랜드관'에서 특별 할인판매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 판매 행사는 코로나19 및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축·어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천년의솜씨쌀, 꽃게장, 뽕주, 뽕편육 등 부안지역 46개 업체 183개 상품이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어 추석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기간 중 부안군 농특산물은 우체국창구에서 직접 방문 구매하거나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활용시 브랜드관 상단의 할인쿠폰을 다운받으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청소년 20명, 서울 역사문화 탐방 참여

정읍시 중학생 20명이 최근 '정읍-서울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일환으로 서울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읍-서울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읍시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초청으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 경험을 통해 수도 서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서울시립강북청소년센터 청소년 지도사들이 가이드가 되어 서울의 명소를 안내하고, 정읍 청소년들과 함께 서울 여행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속 박물관과 창경궁 등 서울의 역사 현장을 방문하고, 자개 공방 체험 등 문화체험을 진행하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롯데월드 어드벤처 체험을 통해 흥미와 즐거움을 만끽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안전대진단' 합동 점검

정읍시, 10월 14일까지… 6개 분야 92개소 시행

정읍시가 각종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민들의 안전 실천 생활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예방 활동이다.

시는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단(국가안전대진단)을 구성하고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92개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활동에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과 시설물 등 총 6개 분야 92개소로 교량 시설의 변형 및 손상, 노후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각 우려 시설과 고위험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대진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만큼 무사히 안전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방역수칙에 대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대진단 전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내 집과 내 점포 자율 점검하기 등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로컬푸드 직매장 '성분해성 친환경 포장재' 도입

고창군, 2050 탄소중림 정책선도 · 생태도시 청정이미지 제고

고창군이 고창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100%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창군이 고창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100%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생분해 친환경 포장재'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필름이다.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등 분해 환경에 따라 100% 생분해 되며, 환경부로부터 생분해성(EL724)인증을 받아 180일 내 생분해돼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이 가능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일반 포장재보다 다소 금액은 높지만 강하고 질기며 투명도가 높고, 제조와 처리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높아 생태도시 고창의 청정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일반비닐 포장재 일부를 자연에서 생분해 되는 친환경 포장재로 교체하고,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상서면 김익현 · 김소현 남매, 인재육성 장학금 100만원 기탁

상서면에 거주하는 김익현·김소현 남매가 지난 16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익현·김소현 남매는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2학년, 한밭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급받은 장학금과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얻은 수입 일부를 합쳐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다.

김익현·김소현 학생은"장학생 선발로 재단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을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을 위해 환원함으로써 의미를 더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함께 기탁식에 참여한 어머니 최금희님은"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이자 첫 아르바이트 수입을 재단의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이해해줘 고맙고, 재단의 첫 기부를 시작으로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환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장학생 수혜자가 장학금 기부자로 나서 기탁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감동과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김익현·김소현 학생의 부모님은 현재 상서면에서 딸기, 오이 농사 등을 지으며 농업 관련 신기술과 친환경 영농기술을 지역농가와 귀농농가에 보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부안중앙농협에서 선정한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세계 유일의 흰색 상사화꽃인 위도상사화가 만발한 자연에서 가족과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제7회 고슴도치섬 위도상사화 달빛축제'가 오는 8월 27일 위도면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위도 하얀 상사화 관광객 유혹

부안 위도면, 제7회 고슴도치섬 위도 상사화 달빛축제 개최

세계 유일의 흰색 상사화꽃인 위도상사화가 만발한 자연에서 가족과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제7회 고슴도치섬 위도상사화 달빛축제'가 오는 8월 27일 위도면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27일 오후 2시 위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시작으로 마을별 노래자랑, 그리고 이번 축제의 흥을 한껏 북돋우기 위해 송해문화예술진흥회에서 축하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위도해수욕장 주변의 군락지의 흰색 상사화는 꽃대 봉우리가 이번 8월 20일에서 8월 31일이면 최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경관을 화려하게 장식 할 것이다.

주말을 이용해 여름 꽃구경을 생각한다면 힐링의 섬 위도에서의 흰색 상사화를 구경하는 계획도 괜찮을 것 같다.

김현구 위도면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상사화 축제를 통해 한여름 속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끼고 코로나로 침체되 분위기를 반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은기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상사화 축제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한의학 활용 갱년기 주민 건강관리 나서

정읍시가 한의학적 지식을 활용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기초건강관리에 나선다.

2021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정읍시의 우울감 경험률은 7.6%로 전년도 5.4%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전국 7.0%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성 5.8%, 여성 9.3%로 여성의 조사 결과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갱년기 고위험군 중장년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주에 걸쳐 '2022년 한방 갱년기 관리 교실'을 운영한다.

갱년기 관리 교실은 한의학 건강관리법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한의사와 참여자 간 비대면 실시간 화상으로 심층 상담이 진행되고, 예약을 통한 맞춤형 한방 약제와 침 요법도 병행된다.

또 갱년기 증상의 주 증상인 우울감과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신 순환을 위한 기체조, 심신 안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9월 2일(금)까지 '2022년 한방 갱년기 관리 교실' 운영에 참여할 대상자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사업 운영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45세 이상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63-539-6102)에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